

# 국제스포츠에 있어서의 부패행위: 경제적 분석 및 해결방안\*

## Corruption in international sports: Economic Analysis and Solution

박 영 수(Park, Yeong-Soo)\*\*

### Zusammenfassung

Korruption im internationalen Sport ist nichts Neues. Olympische Fülle sind seit 388 vor Christ dokumentiert. In der jüngeren Vergangenheit ragen der Korruptionsskandal im College-Basketball in den USA von 1951, der Fußball-Bundesliga-Bestechungsskandal von 1977 und der Skandal um die Vergabe der olympischen Winterspiele 2002 an Salt Lake City heraus.

Der vorliegende Beitrag zeigt, dass Korruption im Sport – wie in anderen Bereichen menschlicher Aktivitäten – einer ökonomischen Analyse zugänglich ist. Aus dieser ökonomischen Analyse heraus lassen sich Erkenntnisse ableiten, die die bisher ergriffenen, meist von Experten aus den Gebieten der Jurisprudenz, der Politikwissenschaft und der Pädagogik erarbeiteten Maßnahmen sinnvoll ergänzen können. Maßnahmen zur Verringerung der Renten im Sport, zur vergrößerung der Transparenz bei Vergabeentscheidungen sowie monetäre Disincentives gegen korruptives Verhalten erweisen sich als besonders sinnvoll.

Key words: Corruption, Anti-corruption measures, rents, transparency, disincentives

## I. 서론

스포츠경기에서의 부패행위는 그다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스포츠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부패행위는 테살리아(Thessalia) 출신 선수인 오이폴로스(Eupolos)가 기원전 388년에 열린 올림픽 복싱 경기에서 그의 경쟁자들 3명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매수한 사건이었다.<sup>1)</sup> 두 번째의 부패행위는 아테네(Athen) 출신 칼리포스(Kallippos)가 올림픽 5종 경기(Pentathlon)에서 승리를 사들인 기원전 3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Weeber 1991, 118). 이 일이 있고난 250년 후에는 레슬링 선수 오이텔로스(Eudelos)가 그의 경쟁자였던 필로스트라토스(Philostratos)에게 올림픽 승리를 헌납한 사건이 터졌다. 또 엘리스(Elis) 출신 다모니코스(Damonikos)는 기원전 12년 일종의 중개자를 고용하여 상대편을 매수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레슬링 출전선수였던 폴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1) 당시의 규칙에 의하면 올림픽 승리는 박탈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은 공식적인 승리자 명단에 기록된 채 전해내려 왔다(Weeber 1991, 118).

뤼토크(Polyktor)도 자신의 아버지가 경쟁상대인 소산도르스(Sosandors)의 아버지를 매수하여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하였다. 기록상 고대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부패스캔들은 2명의 복서가 연루된 서기 125년에 일어났다. 이와 같이, 천여 년의 올림픽 경기 역사상 단지 6건의 부패행위만이 기록상으로 남아있지만, 사실 스포츠 경기에서 일어난 부패행위는 훨씬 광범위하게 퍼진 현상이었다(Decker 1995, 152).

최근 스포츠 경기에서 나타나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다시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개최의 양도와 관련된 논의를 계기로, 국제스포츠 업무의 부패행위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이 논문의 2장에서는 부패의 정의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부패의 사회적 비용을 다루고자 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부패의 원인을 집중 조명하게 된다. 지금까지 부패의 사회적 비용은 대체로 윤리적인 관점과 연관된 스포츠정책과 스포츠 법학에서 다루어졌지만, 이 논문에서는 경제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스포츠 부패행위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5장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으며 스포츠실무에서 제기되는 반부패방안에 대한 숨意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스포츠에서 부패의 정의와 규모

### 1. 정의와 경계설정 문제

부패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가마다 그리고 문화마다 부패의 개념이 서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부패와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Tanzi 1998, 9f.). 그러나 스포츠에서의 부패는 아래의 경우 대개 인정된다:

(1) 스포츠 관례상 전력을 다하지 않고, 다른 운동선수에게 스포츠의 승리 또는 순위를 양보하는 행위.

(2) 스포츠 단체의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하여 비밀리에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이득을 받거나 또는 기대하는 행위.<sup>2)</sup>

위 (1)의 경우는 대개 명백한 자료와 증거가 있다면 확실한 부패행위로 인정된다. 그러나, (2)의 경우에는 다소 異論의 여지가 남는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전 IOC부위원장 이었던 김운용은 스포츠관련 업체로부터의 수뢰혐의로 구속되면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이런 사실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하면, 각국의 월드컵 축구 TV중계권 부여와 관련해서도 세계축구협회 관계자들에게 많은 뇌물이 건네졌을 것으로 추론할

2) IOC스캔들과 관련하여 互惠性을 지향하고 있는 뇌물수수행위와 선물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Tanzi 1998, 9).

수 있을 것이다(Hartmann u.a. 2004, 45). 그렇다면, 무엇이 스포츠 부패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어려움은 1904년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의 사건에서 나타났는데, 당시 해당연맹의 바램대로 자전거 경주 팀의 한 선수가 다른 경쟁자에게 우승을 양보한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런 행위는 다른 스포츠종목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행위로 인정되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 예컨대, 2002년 오스트리아 포물러 원 그랑프리에 참가한 Ferrari 팀의 바리첼로(Barrichello)가 동료인 슈마허(Schumacher)를 결승점 앞에서 먼저 지나가게 한 행위가 일어나자 협회차원에서 이를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예가 있다.

독일의 2006년 월드컵 유치에도 이와 유사한 비난이 일어났다. 당시의 월드컵 유치는 바이에른 뮌헨팀과 타일랜드, 튀니지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몰타의 팀들과의 친선경기를 통하여 크게 도움을 받았다. 당시 서독 축구협회는 이들 국가와의 친선경기를 빌미로 막대한 금전적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런 행위를 거대한 부패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반면 정당한 절차를 거친 유치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축구를 포함한 다른 여러 종목에서 세계랭킹 순위를 조작하거나, 랭킹에 올라있지 않은 선수를 위해 뇌물을 수여하고 타이틀 매치를 성사시켜주었던 세계복싱연맹의 행위도 다른 차원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이러한 단체들이 TV시청자와 후원자가 풍부한 선수들을 내세워 가장 흥행가능성이 높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기를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기획하는 일은 부패행위라기 보다는 정당한 업무로서 인정될 여지도 있다. 해당 스포츠협회의 생존을 위해서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는 경영적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것이 되고, 해당 단체의 목표관에 부합하며 대중에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스포츠단체나 스포츠연맹은 새로운 광고홍보작업의 진행과정에서 가끔 부패라고 비난받는 방식도 사용한다. 때로는 언론인을 매수하듯이 언론인에 대한 온갖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시합을 취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훌륭한 식사와 편안한 숙소, 때로는 사설 전용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접대를 통해 생산된 광고홍보기사는 마치 정상적인 기고문으로 둔갑하고, 특히 거대한 스포츠행사를 흥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의 기사가 온갖 언론매체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산업체, 더 나아가 포괄적으로 언론기관의 부패 연구에서 다루어질 내용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특정한 행위가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동일하게 부패행위로 판단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馬場馬術競技 심판들의 행동양식은 이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심판들은 馬主의 이름을 고려하여 이를 감안한 점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심판들이 마주에게서 아무런 사적 이득도 기대하지 않는 한 심판들의 행동은 부패로 해석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점수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단순한 추가적인 정보의

획득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부패규모를 위한 상대화

스포츠 부패와 관련하여 부패의 비공개수치가 중요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인 경제범죄에 대한 비공개수치가 96%를 넘어 다른 범죄의 종류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Rügemer 1996, 330).<sup>3)</sup> 그러나, 스포츠에서의 부패규모는 공식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나타난다. 물론 부패행위에 대한 규모를 판별하는 것은 심각한 측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서구 선진국과 같은 상대적으로 신뢰할만한 국가에 대해서도 스포츠 부패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얻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하겠다(Rügemer 1996, 328-331).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차원의 반부패 전략과 방지대책들이 거의 모든 스포츠 경기에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스포츠시합에서 밝혀진 부패의 사례는 상당히 심각하다. 예컨대 1990년대 말 폭로된 IOC에서의 부패를 보면, IOC위원들의 10% 정도가 위원이 되고 난 1년 안에 내부조사에 의해 경고조치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100명이 넘는 다수의 위원들은 흠결 없이 행동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실제로 솔트레이크 시의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Tom Welch와 Dave Johnson에 대해서는 미국 법무성이 고소를 하였지만 연방재판소는 이들의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을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시 판결문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 웰치나 존슨이 불법 활동을 위한 필요한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유타주의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한 증거만 있다”(OECD 2003b, 4).

이와 같이 스포츠에서 나타난 부패의 사례들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명백한 실증적인 증거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Tanzi 1998, 4). 실제로, 스포츠에서의 부패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1988년의 복싱스캔들과 1990년대 말의 IOC스캔들은 흥미롭다. 복싱스캔들은 동독의 국가안전부(STASI)의 기록문서가 공개되어 일반인에게 알려진 경우이다. 1990년대 말에 일어났던 IOC스캔들은 2002년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것이다. 즉, 미국의 올림픽유치위원회가 올림픽개최권을 따기 위해 IOC위원들에게 접근하였고 IOC위원들은 결국 미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도록 결정하였지만, 당시 미국보다 더 나은 개최희망도시가 여러 개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검증하는 일련의 서류문치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다수 IOC위원들의 문제점 있는 행동들은 부패행위

3) 이 추정에 의하면 상점 강도는 4 - 6%, 강도 범죄가 대략 50%, 폭행 및 강간행위가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가 아닌가 하는 세인의 관심과 의혹을 받게 되었다(Fuchs 1999, 39).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뇌물의 정도는 부패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효용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러한 사실은 부패에 대한 통상적인 관찰과 일치하고 있으며, “경쟁과정을 통한 地代는 뇌물의 지불행위로 완전히 이전된다”는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이론적 작업들을 반박하고 있기도 하다(Kr ger 1974, 291). 지대추구행위에 있어서는 이를 저지하는 진입장벽, 거래비용, 위험재고 그리고 조정문제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Rasmusen und Ramseyer 1994, 305).

### III. 스포츠 부패의 사회적 비용

#### 1. 희생비용과 범행자비용

스포츠 부패의 사회적 비용은 첫째 ‘희생비용’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행사의 개최와 관련된 부패의 경우, 개최지를 유치하지 못한 도시의 실현되지 못한 이미지 손해, 소득 및 고용창출 손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기에서의 부패행위가 나타난 경우에는, 승리하지 못한 선수의 실현될 수도 있었던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이득, 예를 들어 승리 특별수당, 마케팅 수익 및 승리의 영광 등이 희생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손실의 계산은 경제적 손실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좀 더 포괄적으로 패배한 선수의 놓쳐버린 효용증대를 포함해야 한다. 말하자면, 손실의 계산을 하면서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사회적 효용손실을 계산해야 하고 부당하게 패배한 희생자의 손해정도를 승리한 범법자(또는 그와 연관된 대리인 혹은 기관)의 효용증대와 대비시켜야 할 것이다. 도시 A를 대신하여 도시 B가 세계선수권을 개최하고, 여기에서 C라는 선수 대신 부당하게 D라는 선수가 승리자가 된다면, 다소 복잡하지만 효율성 증대의 정도를 포함하여 사회적 손실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이때 비합법적인 분배에 근거한 순수한 효용의 移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부패행위가 평균적으로 복지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미친다고 논증하는 경우도 있다. 선수 또는 팀이 뇌물을 받고 승리를 팔아버릴 때, 그 선수 혹은 팀은 분명히 스포츠의 승리에서 오는 효용보다 더 큰 경제적 수익을 평가하였을 것이다. 반대로 뇌물을 공여하는 선수는 승리에서 오는 효용을, 줄어든 경제적 자산에서 생겨나는 효용손실보다 높게 평가하였기에 이런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부패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스스로 효용증대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부패의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비용은 패배자에게 직접적으로는 생기지 않지만,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스

4) 도시 B가 시합을 덜 효율적으로 개최했을 때, 사회적 손실은 그 차액만큼 생긴다.

스포츠의 가치 혹은 사회적 갈등구조를 만든다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부패행위로 인해 스포츠의 중요한 정신이 더 이상 실현되지 않으며, 스포츠의 위신은 추락하고 잠재적 선수들은 스포츠로부터 등을 돌리고, 후원기업들은 후원을 중단하게 된다. 예컨대, 2002년 동계올림픽개최와 관련한 부패행위가 알려지자, 존슨 & 존슨사는 당시 약속했던 후원금액 3000만 달러를 취소하였다. 이런 추가적 비용은 중장기적으로 전 스포츠 종목과 선수에게 전파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광범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희생비용’이라는 개념이 승리하지 못한 선수나, 개최도시 유치에 실패한 도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대로 희생비용의 상당부분은 특정한 부패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와 개인, 혹은 국가에게도 가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부패의 사회적 비용에는 범행자들이 부패행위를 준비하면서 소비하는 모든 비용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뇌물도 해당된다. 이 같은 비용이 수뢰자에게는 효용증대에 상응하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수뢰자의 효용증대와 증뢰자의 금전적인 효용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범행자가 행하는 노동의 결손으로 인한 손실과 범행의 준비와 실행에서 생겨나는 다른 비용도 추가된다. 물론 이 같은 비용은 부패에서 적은 부분일 수도 있다. 올림픽 경기의 개최를 예로 들면, 경기장, 운영자금 조달, 안전문제, 혹은 홍보문제도 중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상당한 것이다.

## 2. 부패회피를 위한 비용

범죄행위 비용의 세 번째 형태는 통상적으로 개인적인 회피비용도 있다. 예를 들면, 부패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경기에 대하여 선수들이 참여거부를 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 등이다. 만약 특정 스포츠 행사에 부패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해당기관은 사설 신용조사소를 통해 조사를 한다든지 이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실제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예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스포츠가 아닌 경우라고 판단되면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발생하는 비용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스포츠 부패와 연관하여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다양한 부패회피 비용과 함께 부가적인 법적 집행비용(스포츠 중재재판소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스포츠 단체들은 부패회피를 위해 애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핑과 같은 법적 집행에도 많은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 이런 비용은 갈수록 스포츠단체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섯 째, 사회적인 처벌비용도 있다. 여기에는 스포츠에서 부패행위를 행하였던 범법자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집행하는 비용이나 보호관찰 비용 등을 포함한다. 물론, 처벌을 받게 되는 범법자들이 받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형벌을 받은 뒤에 사라져버린 경제적 수입도 포함한다.

#### IV. 스포츠 부패의 원인

스포츠 부패의 경제학적 분석은 단지 부패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범주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부패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분석하는 것에 깊은 의미를 둘 수 있다. 경제학적 분석은 부패행위를 분석하면서 전형적인 희소성 및 분류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단체의 희소한 자원은 대개 부패척결을 위한 예산배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다른 정책과제와의 比較衡量(Abwägung)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부패척결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도 비교형량을 고려하여 특정한 방식의 조치를 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가치, 물리적 고통 및 도덕적 가치처럼 외견상 이질적이며 모순되는 차원들을 서로 비교형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지향하는 수학적·통계학적 모델과 도구도 사용하게 된다.

특히 베커(Becker 1968, 169이하)는 범죄행위의 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다. 그의 중심적인 명제는 스포츠의 불법적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일에는 잠재적 범인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퇴치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자도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 모든 행위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비용과 효용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잠재적인 개별적 범인의 불법적 행위의 집합으로부터 전경제적 공급이 생겨난다. 또한 불법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증대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의 비용과 효용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불법행위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부패허용의 용의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불법행위의 실제적 양, 즉 부패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 1. 부패의 공급

경제적 관점에서 부패는 어떤 개인의 합법적 및 불법적 행동의 대안들 중에서 그에게 가장 큰 기대된 이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고르는 합리적 선택행위의 결과이기도 하다. 베커의 모델을 확장하여 보면, 위험중립적인 한 개인에 의해 계산된 불법행위의 순효용은 처벌받지 않은 ‘성공한’ 부패의 효용의 총합[ $E(U_{in})$ ]이 혹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의 탄로, 유죄판결, 처벌이 내포하는 부정적인 효용과의 차이와 일치한다(Maennig 2002, 61).

$$E(U_i^n) = (1 - p_i)\{U_i(p_i Y_i - DC_i - POC_i) + p_i NPB_i - NOC_i\} + p_i\{U_i(-F_i - DC_i - POC_i) - LR_i - NOC_i\} \quad (1)$$

여기서  $E(U_i^n)$ 는 부패행위로부터 개인  $i$ 에 의해 기대된 순효용이며, 또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을 경우인  $1 - p_i$  뒤의 괄호 안에 묘사된 효용증대와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인  $p_i$  뒤의 괄호 안에 묘사된 효용손실의 차이를 의미한다.

$p_i$ 는 '적시(適時)'에 처벌될 확률( $0 \leq p_i \leq 1$ )을 나타낸다. 베커의 모델을 확장해 볼 때, 2002년 동계올림픽의 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적시'라는 표현은 스포츠 부패의 경우 매우 중요하다.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은 너무 늦게 나타났고 결국에는 추정되던 뇌물을 제공한 증뢰자나 수뢰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솔트레이크 시는 예정대로 동계 올림픽을 개최했고 올림픽 경기에서 생긴 수입을 향유했다.

$p_j$ 는 부패가 처벌되지 않을 확률( $0 \leq p_j \leq 1$ )을 나타낸다. 여기서도 베커모형을 적용하면 IOC의 경우 증뢰자 도시가 비밀 선거과정 때문에 개별적 수뢰자와 관련한 효과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IOC 위원들이 어떤 도시를 찍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증뢰자가 자신의 성공을 완전하게 제어할 수 없는 한,  $p_j < 1$ 로 나타난다.  $p_j$ 는 뇌물의 크기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U_i$ 는 적발되지 않은 부패의 금전적인 총성공 수입인  $Y_i$ 와 관련이 있다. 즉, 잠재적으로 부패한 개인 또는 잠재적으로 부패한 기관의 효용함수이다.  $DC_i$ 는 범인의 직접적인 준비, 실행 및 뇌물을 포함한 처벌회피비용이다.  $POC_i$ 와  $NOC_i$ 는 개인적인 금전적 및 비금전적 기회비용이다. 분명 좋은 전략을 통해서 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신청에서부터 부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대회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개최가능성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는 순위조작은 이익이 된다.

$NPB_i$ 는 부패로부터 생겨나는 비금전적인 효용, 즉 예를 들어 발각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스포츠행사를 개최한 도시 또는 선수의 이미지창출에서 오는 수익이다.  $F_i$ 는 재정적인 처벌 내지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 장래에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상금과 출전비 수입, 또는 줄어든 후원금 수입의 형태로 나타나는 재정적인 손실을 의미한다. 또  $L R_i$ 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줄어든 평판 때문에 발생하는 비금전적인 효용손실을 나타낸다. 기대된 순효용이, 도덕적 가치에 의해 생겨나는 불법적인 행위  $NPC_i$ 의 기대된 효용손실분을 상회할 때는 불법적인 행위로 귀결된다.  $NPC_i$ 은 매 개인에 있어서 일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크기는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서로 다른 크기를 가정할 수 있다.

$$E(U_i^n) > NPC_i \quad (2)$$

개인은  $E(U_{in}) > NPC_i$ 일 때,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행동한다. 즉, 불법적인 행동들로부터 생겨나는 순효용이 특정한 도덕적 가치의 한계선을 넘어서면 개인은 부패한 행동을 한다. 전술한 비교형량이 잠재적인 증뢰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수뢰자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때만 비로소 부패행위로 끝이 난다. 대부분의 범죄행위의 다른 형태들과 비교했을 때 부패행위는 적어도 두 명의 개인이나 두 기관들이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큰 기대를 거는 급박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

위의 식 (1)과 (2)로부터, 왜 똑같은 조건 하에서 다른 이들은 그러지 않는데, 스포츠 단체의 몇몇 구성원들은 부패한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가 도출된다. 그러므로 열심히 훈련하고 빼어난 자질을 가진 선수들은, 즉 보다 높은 기회비용을 가진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 보다 드물게 매수된다.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ceteris paribus*) 적은 수입을 가진 체육계 관계자들이나 심판들이 보다 더 매수되기 쉽다. 스포츠 경기를 통하여 특별히 높은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득( $Y_i$ 와  $NPBi$ )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의 선수와 협회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뇌물의 수수에 유혹되는 경향이 있다(예를 들면 유럽의 프로축구). 반면,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는 (높은  $NPBi$ ) 선수와 협회관계자는 보다 낮은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변수들이 실현될 수 있는 보다 큰 선택권이 있으므로 불법적 행위를 거부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분석에서도 부패와 관련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요인들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흔히 경제학자들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요인들에 따라 서로 다른 합리적 결정을 행한다고 가정하고 때로는 뇌물을 부패의 유일한 동기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위의 등식에서 본대로 비용과 편익이라는 요인들을 변형시키기도 한다. 이 때 사용되는 변수들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베커는 사람들이 범죄행위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들의 동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인지한 효용과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Becker 1968, 173).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로부터 기대된 순효용이 선수나 협회관계자의 도덕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거나, 적절한 부패동업자를 발견할 수 있다면 부패행위에 가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상관관계는 부패로 인해 증가하는 수익성이 선수들과 스포츠 관계자들의 도덕적 한계치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Ehrlich 1996, 43).

## 2. 부패에 대한 수요로서의 용의

부패행위에 가담하는 개인들은 3장에서 언급한 범죄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부패행위가 증대하는 것은 희생비용과 실행계획 및 실행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스포츠 정책 담당자들은 부패행위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한다(Ehrlich 1996, 43). 이러한 강화된 대책은 잠재적 범죄자 입장에서는 범죄행위로부터 감소된 기대 순효용을 의미한다. 또 선수들과 스포츠 관계자들의 도덕적 가치가 특별히 높아서 부패율이 아주 낮은 스포츠 종목에서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애초에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수의 부패한 개인에 대한 수익은 아주 높을 수 있다. 반면에 부패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야에서는 정책책임자들은 부패행위로부터의 수익을 경감시키는 대책을 강화하려고 시도한다. 이 같은 스포츠 정책결정자의 내생적 반응은 부패율과 부패로부터 기대된 순효용 간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야기한다. 만약, 부패율과 부패 수익률 간의 부정적인 함수가 크다면, 이는 비합법

적 부패행위에 대한 수요를 허용하는 용의를 의미한다.

### 3. 부패와 선별된 영향요인들을 위한 시장에서의 균형

수요와 공급의 시장균형 원리에 따라 부패행위자들의 비용과 편익 계산은 그들의 부패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가치악화(NPC가 떨어질 때)가 일어나면, 부패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게 되고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도덕적 장벽이 낮아지는 것이다. 증대된 부패율에 따라 새로운 균형을 야기하고 부패에 대한 공급이 늘어난다(주어진 수요곡선에서 공급곡선의 우측 이동).

## V. 스포츠 부패의 효율적인 척결방안

스포츠 부패행위에 대한 최적의 반부패정책은 두 가지 중요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로, 범죄행위의 경감을 위한 조치는 범죄행위의 사회적 한계비용이 한계효용(절약된 희생 및 행위실행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은 보통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죄발생률을 0으로 낮춘다는 것을 사회적 목표로 정하기 어렵다”는 결론과 연결된다. 환언하면 경제적 효율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범죄행위는 피할 수 없다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스포츠에서는 부패발생률이 0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스포츠부패의 경우는 현저한 사회적 한계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스포츠 부패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범행자뿐만 아니라 전 스포츠종목에 대한 평판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판단하면, 스포츠부패가 미치는 광범위한 피해는 단지 부패가 공공연하게 알려질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런 만큼, 스포츠 부패를 알게 되더라도 이를 공표하는 것을 주저하는 스포츠협회의 태도가 일면 이해되기도 한다. 스포츠 부패행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스포츠에만 국한되지 않고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IOC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경우, 그 손실이 전 세계 스포츠에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부패회피의 전체 총한계비용이 체계적으로 적게 유지될 수 있는 경제학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부패방지 조치는 부패회피의 총한계비용을 줄이면 효과적일 것임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부패의 사회적 총비용과 부패행위를 하는 개인의 사회적 총효용의 관계가 일치하게 만들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A조치가 다른 조치 B보다 두 배의 효과(두 배의 높은 한계효용)가 있다고 할지라도, A의 한계비용이 B의 두 배 이상을 야기한다면 투입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패방지 조치의 효용과 비용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일은 효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 부패의 근절을 위해 행해졌던 실무적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Kligaart(1988, 75)의 공식인  $\text{부패} = \text{독점} + \text{자유재량} + \text{책임}$  이라는 도식을 이용할 수 있다. 아래의 3가지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특히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sup>5)</sup>

## 1. 지대(Rent)의 경감을 위한 조치들

승리를 위한 뇌물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당연히 구매한 승리로부터 높은 지대가 획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행위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거대한 수입이 발생하는 스포츠 종목, 예를 들어 축구, 복싱, 농구, 야구, 미식축구 등은 항상 부패와 관련성이 깊다. 올림픽경기나 개최권 획득도 이러한 설명도식에 해당될 수 있다. 올림픽 개최권에 관한 한, 충분한 경제적 이윤이 없다면, 개최도시를 위한 경쟁도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재정적인 붕괴를 경험하고 난 이후, 1984년 개최도시를 위한 선정에서는 단지 로스앤젤레스 한 도시만 신청을 한 점은 이런 경제적 이윤측면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개최에서 자금동원에 성공한 전례를 만들게 되자, 이후로는 매년 10여 개의 도시가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지원을 하게 되었고 부수적으로 개최권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문제도 나타났다.

스포츠종목에서의 지대는 해당 스포츠 단체들이 불공정한 독점을 향유하면서 다른 공급자들에 의해 거의 위협받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특히 다른 스포츠종목에 대해 제한된 경쟁관계에 있는 스포츠종목이 이에 해당된다. IOC의 경우에 독점상황은 특히 명백하다. 올림픽 경기와 같은 거대한 스포츠 행사의 개최도시에게는 엄청난 부가적 효용이 주어지고 올림픽이 개최되고 난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세계적 행사, 예를 들면 세계평화축제, 세계박람회 또는 유소년 세계경기 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만큼, IOC의 결정은 이러한 식의 성과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스포츠 부패의 관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스포츠부패의 회피를 목적으로 지대경감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치는 조달이 가능한 뇌물( $Y_i$ )과 비경제적 이윤( $NPBi$ )의 경감을 위한 조치여야 할 것이다(Maennig 2002, 68).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술적 및 조직적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최저기준을 확립하고 나서 올림픽 경기와 같은 시합을 경매에 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Steward und Wu 1997). IOC위원들은 기준의 설정 외에는 결정의 권한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효율적인 경매입찰 과정에서는 지대에서 경합이 없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보조금 형태의 지대나 올림픽 경기시설에 필요한 도시 하부구조의 공동 자금조달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지원도시의 경쟁을 줄이기 위하여 텔레비전 중계권 및 마케팅 수입을 높이는 것은 더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다. 특히 인기 있는 스포

5) 부패척결을 위한 조치는 부정적, 긍정적으로 양자택일 할 수 있고, 또는 교육적 조치로 분류될 수 있다. 부정적 조치에는 특히 보다 가혹한 형벌과 부패의 적발확률의 증대가 해당된다. 긍정적 조치에는 범죄행위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조치들이 해당된다.

스포츠종목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것을 보면 이러한 시합이 여전히 개최도시를 위해 돈 벌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포츠경기에서 잠재적인 뇌물의 지불행위(식 1의  $Y_i$ )를 줄이는 것이 스포츠부패를 줄이는 것이므로 모든 부패가능 스포츠에서 아마추어 규정의 재도입(선수에게 금품 지불의 금지)도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이는 거의 도입가능성이 없다. 스포츠의 매력은 선수-시합준비자-미디어-후원인이라는 연쇄고리에서 높은 가치창출을 야기한다. 그렇지만 한 종목에서 우수한 선수를 완전한 아마추어 규정으로 복귀하게 만들면 이 선수들에 대한 물질적인 가치창출이 배제되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종목의 운동선수들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의 대학스포츠 경기를 보면, 인기종목의 스포츠체계에서 현저한 수익이 존재할 때 아마추어 스포츠종목조차도 부패의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 1에 의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수입을 획득하려는 대안들의 개선을 위한 조치, 즉 긍정적 조치는 부패적결을 위해 유용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다 나은 훈련조건을 제공하고 부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선수들을 위한 의학적 상담을 가능하게 하며 때로는 아마추어 규정의 제거를 통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때로는 아마추어 규정의 실행은 스포츠 단체들의 높은 규제비용과 연관성이 있지만 결국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입을 얻으려는 긍정적인 조치들은 부패제거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조치인 것이다.

야구에서의 부패를 예로 들면, 지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의 대학야구경기에 대한 도박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다른 조치와의 시너지 효과로 바람직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의 경제적 효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도박행위의 금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패회피의 한계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높은 한계비용을 가진 조치들은 보다 적은 한계비용을 가진 비교적 효과적인 조치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 2. 자유재량 여지의 경감

부패행위에 관련하여서는 자유재량의 여지가 적을수록 부패행위가 줄어든다. 즉, 간단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결정들은 부패의 위험에 덜 노출된다. 무엇보다 부패의 척결에 있어서 높은 투명성의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Tanzi 1998, 559). 높은 투명성이 존재하는 경우 식 1에서 부패로부터의 총효용은 낮아진다. 왜냐하면 성공확률  $\pi_i$ 이 줄어들고 범행준비비용  $DC_i$  및 경제적 기회비용  $POC_i$ 는 증대되기 때문이다. 복싱과 피겨스케이팅에서 심판의 판정들은 높은 재량권을 갖고 있어서 이에 상응하여 부패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출발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결승점 통과를 비디오와 자동 시간측정을 통해 증명해주는 100미터 육상경기에서는 심판들에 대한 매수가 불필요하고 거의 불가능하다. 심판판정이 중요한 종목에서 더욱 개선된 방식으로 투명성있게 판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면 부패행위는 자동적으로 줄게 된다.

예컨대 복싱이나 피겨스케이팅 종목의 경우, 심판의 재량권을 줄이는 새로운 판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한계비용을 가지게 되어 부패의 여지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재량권의 감소는 다른 스포츠종목에서도 효율적인 반부패수단일 수 있다. 그래서 심판의 부패가 자주 언급되는 축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심판판정의 객관화를 위한 조치(심판판정에 대한 전자공시, 3D 위치측정체계, 비디오판독 후의 판정의 신속한 교정허용 등)들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Miller 2003, 18).

### 3. 책임감 증대

식 1로부터 강화된 규제(적발 및 유죄판결 확률  $\pi_i$ )와 증대된 형벌  $F_i$ 는 잠재적 부패를 줄이고 청렴한 방향으로 바뀌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규제체계와 형벌의 크기가 얼마만큼 부패행위의 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상당히 복잡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패척결에 있어서의 성공은 좀 더 구체적인 기획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규제체계에서는 일탈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확실한 행동규범의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밖에 규제체계의 다층화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 해당부서의 상급기관을 통한 내부적인 교정 및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스포츠 행위에 참여한 하부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급의 해당부서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적절한 유인체계를 통하여 감독관과 상사들 자신이 부패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기대된 형벌은 부패한 감독관의 늘어나는 몫으로 줄어든다(Andwig und Mone 1990, 63). 게다가 독립적인 법원의 판결과 익명성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패행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보에 대한 특별상여금 제도나 자유로운 언론의 보도도 부패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Bac 1998, 103). 결국 부패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비밀선거와 관련한 원칙들의 완화도 부패행위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최도시를 위한 투표는 일반대중에게는 비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결정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책임감을 증대하는 규제행위의 개선을 통하여 부패행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투표행위에 대한 공증을 하거나, 부패행위가 의심받는 경우 용의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투표를 했는지 또는 그들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결정적이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엄벌은 부패행위의 빈도수를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뇌물 수뢰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엄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방어기제와 비밀유지가 작동하게 되고 더욱 증대된 뇌물요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Tanzi 1998, 18). 높아진 형벌은 부패의 단위규모(뇌물액수로 측정했을 경우)를 증대시킬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Bac 1998, 105). 이 같은 한계점을 유념하여, 수뢰인에 대한 처벌이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스포츠단체에서 행해졌던 제명조치보다 더 효과적으

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과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벌금형태의 형벌은 경제적 관점에서 금고형과 같은 형벌보다 사회적 자원을 거의 소비하지 않으며, 부패회피의 적은 한계비용을 야기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제학자들의 시각에서는 개별적으로 측정된 벌금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Becker 1968, 193). 그러나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손해배상청구권은 제3장에서 서술한 손해측정의 문제점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올림픽 개최권과 관련된 부패행위에서는 손해측정이 부패행위에 대한 비밀유지와 상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계약상의 합의를 한다거나 부패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손해측정이 더욱 분명할 지도 모른다. 반면, 수뢰자의 적은 수입이 부패수용에 대한 중요한 이유였다면 위약금 역시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대체로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부패에 저항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Mookherjee und Png 1995, 145; Besley und McLaren 1993, 119), 스포츠 협회관계자, 심판, 선수의 명예직을 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책으로 보상하는 일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IOC위원에게는 일반 판사들의 임금수입이 기준이 되어 업무상 지출에 대한 높은 보상금을 매달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포츠 관련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임금형태로 일부분만 지불되고 나머지 부분은 노후보장을 위한 기금으로 불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금 청구 권리는 IOC위원의 경우 불명예스럽게 IOC에서 물러날 때는 없어진다. 이 같은 방침은 두 가지 유인과 양립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첫째로, 수입이 확보되는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부패의 수용의지가 감소된다. 둘째로, 불명예스러운 탈락은 곧바로 엄청난 재정적 불이익으로 나타난다. 기금청구의 권리가 취소되면 특히 연소한 IOC위원들에게는 미래의 보다 광범위한 소득손실을 가져 온다. 물론 오래 근무한 IOC위원들에게도 노후연금액의 폐지는 비통할 것이다. 2001년 6월 IOC위원장 선거에서 한국의 김운용 위원은 모든 IOC위원들이 매년 업무상 지출에 대한 보상금으로 5만 달러를 받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오히려 그의 당선기회를 명백하게 감소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미 부패한 자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IOC 윤리위원회는 이런 제안을 부패행위로 간주하고 그의 위원직을 박탈하였다.

마찬가지로, 증뢰자에 대한 엄벌은 명백하게 부패가 감소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Bac 1998, 110). 따라서 부패행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증뢰자가 유인을 갖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도 필요하다. 예컨대, 광고와 관련하여서는 사전협약을 통하여 공탁하는 보증금이나 위약금을 높게 하여 투명하게 계약을 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모든 직책에서 일괄적으로 배제시키는 규정을 만드는 것 등이다.

#### 4. 그 밖의 조치들

##### 1) 제도경제학적 조치

경제적 관점, 특히 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지적하는 조치들은 스포츠 부패척결을 위해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존재하였던 부패구조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방식과 가치관을 만들고, 미래에 일어날 부패행위의 크기와 빈도를 결정한다. 만약 부패의 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부패 관계자들이 느끼는 부패행위의 한계비용-예를 들어 평판의 실추(LRi)-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부패한 스포츠계를 개선하는 것이 힘들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일단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부패방지가 신속하게 가능한 예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일련의 공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부패행위를 감소시켰음을 보여주었다(Tanzi 1998, 16). 이때, 해당관련자들이 느끼는 부패규모의 감소가 중요하다. 체계적인 윤리 지향적 제도를 통하여 부패척결을 시도한 스포츠종목들은 확실하게 성공을 거두었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었다(Myrdal 1968, 408). 이런 제도적 장치와 함께 부패행위 척결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부패행위는 나쁜 예외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일도 중요하다. 더구나 부패회피를 위한 이런 조치의 한계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실행이 어렵지도 않다. 반면, 식 2에서 도덕적 임계점인 NPCi는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2) 직무순환방식 또는 재직기간의 제한

이러한 조치는 잠재적인 증퇴인과 수퇴인 간의 친교를 제한하고, 동시에 부패행위가 일어날 때 적발될 확률이  $\pi$ 보다 적어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Bardhan 1997, 1338). 재직기간을 제한하는 IOC의 결정은 다른 단체들을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결정권자 수의 확대

적은 수의 결정권자만 연루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결정에서는 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결정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뇌물시도가 비교적 비싸질 수 있고(증퇴인의 계산에서 DCi가 상승), 특히 적발될 위험이 증가하고( $\pi$ 가 상승), 뇌물시도가 성공을 거두는 경우  $\pi$ 를 제어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예컨대 스케이팅 종목에서 심판의 수를 늘리는 것은 부패행위를 막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된다. 반면, IOC에서 평가위원회와 정보취급자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IOC위원에 대한 여행금지 같은 조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올림픽개최를 희망하는 도시들에 대한 여행을 제한함으로써 IOC위원들에게 향응과 접대를 받거나 부패행위와 연루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이지만, 의도하지 않게 비효율적인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게 된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부패방지조치가 잠재적인 긍정효과 혹은 부정효과를 야기하는 상황에서는 비교형량 분석을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도시들의 장점의 비교를 통해서

는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단점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결과가 파악할 수 있지만 이때 장단점에 대한 과다한 가중치로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행금지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하기 힘들 것이다 (Rogemer 1996, 330).

## VI. 결론

스포츠 부패는 이미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도 존재했었다. 그리고 부패는 근대 스포츠 경기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비공개된 많은 부패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다른 영역에서와는 달리 스포츠에서만 유독 부패행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스포츠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은 항상 필요하다.

제도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서도 스포츠단체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반사회에서처럼 범죄행위가 전혀 없는 상태인 ‘범죄율 0’을 목표로 하더라도, 반드시 0의 상태가 될 필요는 없다는 일부 경제학적인 주장이 있지만, 적어도 스포츠 부패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 이는 스포츠의 기본정신과 가치와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선수들과 스포츠단체가 가지는 부패행위의 높은 한계비용이 존재하고 또한 비교적 경미한 부패회피비용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최적의 부패율 0에 가까워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패방지조치의 정책조합을 만들 때 모든 조치의 한계비용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고, 특히 개별적인 조치에 대한 한계효용의 분석도 고려해야 한다는 경제적 인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적인 스포츠 분야에서 행하고 있듯이 일련의 부패방지조치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예기치 않게 비효율적인 정책효과를 보게 되는 조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부패퇴치를 위해 행하고 있는 미국 대학스포츠에서의 도박금지와 IOC 위원들에 대한 여행금지는 의도한 효과보다 실제로는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부패회피를 위해서 오직 경미한 한계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조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에 속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같은 계열의 스포츠 종목들이 경제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올림픽과 같은 거대 스포츠행사의 개최도시에서 행사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줄이는 조치가 이에 해당된다. 이익감소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의 숫자가 충분히 감소할 것이고, 가난한 나라에서도 개최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지원되는 국제적인 계열스포츠로부터 특정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경기를 담당하는 선수와 심판에 대한 선발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기획하는 것도 한계비용을 최소화하며 부패행위를 줄이는 조치가 될 수 있다.

- 선수들과 심판, 협회관계자들을 위한 재정적인 유인기제를 구축하여 이들에게 시장 임금보다 높은 공식적인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유인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부패행위에 대한 높은 벌금을 도입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특히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가 새로운 것도 아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부패한 선수들에게 과도한 벌금형을 부과 하였고, 더불어 끝없는 평판의 실추(LRi)를 가져오게 만들었다(Bardhan 1997, 1343). 그들은 올림픽 경기장 입구에 배치된 소위 ‘치욕의 기둥’을 건축하는 돈을 부담해야 했으며 이 기둥들은 엄선된 재료와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 제조되어 자산가치가 있을 정도였다 (식 1에서 높은  $F_i$ 가 보장되었다). 부패한 선수들이 지불할 수 없을 때는, 그 선수를 파견한 도시가 지불해야 했으며, 기둥에는 부패한 선수들의 이름과 그들의 비행 그리고 도덕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스포츠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경제적 노력들은 고대로부터 존속하였다. 현재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적들이 그리스의 올림피아에 남아 있음을 볼 때 부패행위의 척결을 위한 당위성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현대에 들어서도 끊임 없이 부패행위가 적발되는 것을 볼 때, 부패행위의 유인이 얼마나 강하다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무엇보다도 부패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ndwig, J.C. und K.O. Moene(1990), How Corruption May Corrupt, *Journal of Behavioral Organization*, 13, 63 – 76.
- Bac, M(1998), The Scope, Timing, and Type of Corruption,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18, 101 – 120.
- Bardhan, P(1997), Corruption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Th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 1320 – 1346.
- Becker, G(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 169 – 217.
- Besley, T. und J. McLaren(1993), Taxes and Bribery: The Role of Wage Incentives, *Economic Journal*, 103, 119–141.
- Decker, W(1995), *Sport in der griechischen Antike. Vom minoischen Wettkampf bis zu den Olympischen Spielen*, München.
- Dietz, M(1998), *Korruption: Eine institutionenökonomische Analyse*, Berlin.
- Ehrlich, I(1996), Crime, Punishment and the Market for Offenc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0(1), 43–67.
- Fuchs, N(1999), Mit Steuergeldern kann man dieses harte Spiel nicht spiele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29. Januar 1999*, 39.
- Hartman, G., C. Jeske und J. Weinreich(2004), *Operation 2012*. Leipzigs deutscher Olympiatrip, Leipzig.
- Kligaart, R(1988), *Controlling Corruption*, Berkeley.
- Krüger, A.O (1974),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64, 291–303.
- Mönnig, W(2002), On the Economics of Doping and Corruption in International Sports, *Journal of Sports Economics*, 3(1), 61–89.
- Möller, F(2003), Tor oder nicht Tor. Frankfurter Magazin, Nr. 1, 18 – 20.
- Mookherjee, D. und I.P.L. Png(1995), Corruptible Law Enforcers: How Should they be Compensated ?, *Economic Journal*, 105, 145 – 159.
- OECD(2001), The Netherlands' Prince has Exposed the IOC Ethic Commission, *Sport intern*, 33(19), 1 und 3.
- OECD(2003a), Milliardenstrafen durch Wirtschaftskriminalität.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29. Juli 2003*, 15.
- OECD(2003b), Concluding Words in Salt Lake City. Transcript of Judge Sam's December 5th Dismissal of the Olympic case, *Sport intern*, 35(25), 4.
- Rasmusen, E. und J.M. Ramseyer(1994), Cheap Bribes and the Corruption Ban: A Coordination Game among Rational Legislators, *Public Choice*, 78, 305–327.
- Rügemer, W(1996), Korruption in Deutschland, *WSI Mitteilungen*, 49,(5), 328–337.

- Stewart, M.F. und C.L. Wu(1997), The Rights to Host the Olympic Games Should be Auctioned to the Highest Bidder, *RMIT University Working Paper* 971, Melbourne.
- Tanzi, V(1998), Corruption around the World: Causes, Consequences, Scope, and Cures, *IMF Staff Papers*, 45, 559 – 594.
- Tietzel, M(1989), Probleme der asymmetrischen Informationsverteilung beim Güter und Leistungstausch, C.Ott und H.B.Schöffner(Hg.), *Allokationseffizienz in der Rechtsordnung*, Berlin, 52-63.
- Weber, K.W(1991), *Die unheiligen Spiele. Das antike Olympia zwischen Legende und Wirklichkeit*, Zürich.
- Whitfield, J(2002), Microwaves Track Football. *Meldung vom 6. November 2002*.

투고일자 : 2013. 11. 11

수정일자 : 2013. 12. 16

게재일자 : 2013. 12. 27

국문초록

## 국제스포츠에 있어서의 부패행위: 경제적 분석 및 해결방안

박영수(동아대)

스포츠경기에서의 부패행위는 그다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최근 스포츠 경기에서 나타나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다시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개최의 양도와 관련된 논의를 계기로, 국제스포츠 업무의 부패행위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本稿에서는 부패의 정의를 검토하고, 부패의 사회적 비용을 다루고자 한다. 이어서 부패의 원인을 집중 조명하게 된다. 지금까지 부패의 사회적 비용은 대체로 윤리적인 관점과 연관된 스포츠정책과 스포츠법학에서 다루어졌지만, 이 논문에서는 경제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스포츠 부패행위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한다. 결론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으며 스포츠실무에서 제기되는 반부패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스포츠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경제적 노력들은 고대로부터 존속하였다. 현재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적들이 그리스의 올림피아에 남아 있음을 볼 때 부패행위의 척결을 위한 당위성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현대에 들어서도 끊임 없이 부패행위가 적발되는 것을 볼 때, 부패행위의 유인이 얼마나 강하다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무엇보다도 부패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제스포츠 부패, 반부패정책, 지대, 투명성, 디스인센티브